



“인간의 가장 숭고한 장점은 공감 독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최고 방법”

「**높고 푸른 사다리**」 작가 **공지영**

“지난해 결국 하늘나라로 가신 토마스 수사님이 언제나 내게 말했었다. ‘사랑은 가지지 않아요. 사랑은 가실 줄을 모르는 거니까. 슬픔도 희석되고 실은 아픔도 아팠다는 사실만 남고 잘 기억되지 않지만, 사랑은 남아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음이 거기 남아 있어라, 하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랑아,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 있어라.’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 중에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2013·한겨레 출판)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려낸다. 작가가 주목하는 그 ‘사랑’의 지점은, 그러나 일반의 그것과 다르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내주는 이의 품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때, 1만4000명의 한국인을 구조한 마리너스 수사와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작품에 드러워진 상황과 주제는 지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혼자 살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두고 탈출했던 세월호의 선장과 1만4000명의 피난민을 구조하기 위해 죽음과 맞섰던 소설 속의 마리너스 수사 이야기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전남대가 주최한 ‘2014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작가 초청 북 콘서트가 24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전남대 용봉홀서 작가와의 대화 소설 집필 동기·작가 삶 이야기 장일구 교수-독자 대표 대담 등 작가·패널·시민 의견 나누며 공감

열렸다.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높고 푸른 사다리’ 저자 공지영 작가와 독서클럽 회원, 대학생, 시·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 콘서트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부 작가 강연, 2부 작가와의 대화, 3부 작가사인회 순서로 진행된 북 콘서트에서 공 작가는 집필 동기, 작가로서의 삶 등을 특유의 감성과 지적인 언어로 풀어냈다. 작가는 ‘문학과 인생’ 주제 강연에서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장점 중 하나가 공감하기”라며 “사랑, 질투, 욕망, 희생 등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라고 말했다.
2부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장일구 국문과(현대문학) 교수와 독자 대표 문주리 씨가 대담자로 나서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매개로 주제와, 취재 이야기 등을 나눴다.
장교수는 장 교수는 “‘높고 푸른 사다리’는 사랑을 넘어 흥남철수라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감동적

인 이야기일 수도, 인간과 신의 관계를 묻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독서 소감을 말했다.
독자 문주리 씨는 사랑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높고 푸른 사다리’는 사랑과 구원의 이미지로 다가온다”며 “숭고한 사랑과 희생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동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 씨는 공 작가가 어떻게 이론과 같은 아픈 체험을 숨기지 않고, 소설로 형상화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공 작가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그 상처들과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다”고 대답하게 말했다.
북 콘서트에 참석한 학생들과 시민들도 공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악과 김그린(1학년) 양은 “예전에 ‘도가니’를 읽었는데, 섬세한 문체가 인상적이었다. 이번 소설도 술술 읽힐 만큼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특특 튀는 문장 맛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작품을 읽은 소감을 밝혔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양창하(63) 씨는 작가 정신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 작가는 매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며 “어렵고 소외된 현장을 취재해 이를 소설화 하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대는 10월 중 독서 클럽을 대상으로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독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4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한 공지영 작가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너스, 빛을 입다

이이남전 내달 9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고대 그리스 예술의 이상이 가장 잘 표현된 밀로의 비너스가 빛을 입었다. 비너스의 아름다움에 빛이 더해지면서 신비롭기만 하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의 근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다시 태어나는 빛’을 주제로 10월9일까지 계속된다.
이씨는 그동안 동양사 거장들의 명화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회화작품’을 선보여왔다. 고전 회화에 움직임과 담으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고전과 현대의 대화를 시도했다.
최근 작가의 스펙트럼은 더욱 확장됐다.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작품을 넘어 사진과 조각, 그밖에 다양한 매체를 접목해 새로운 소통 언어를 창조하고 있다.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기존의 맥락을 오버랩 형식의 입체로까지 확장시키면서 좀더 폭넓

은 미디어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빛’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했다. 영상뿐만 아니라, 입체와 설치 작품에 최첨단 기술 ‘LED 라이트’와 ‘LED cutting’을 접목, 이 시대의 가장 익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운 빛’을 보여준다. 비너스에 빛을 입힌 ‘비너스의 발견’과 하룻동안 변화하는 빛을 느낀 흑백 화면으로 담아낸 ‘베르메르의 하루’ 등이 대표적이다. 고전과 최첨단의 조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간극, 이 시대의 ‘빛’에 대한 다양한 단상을 통해 시각예술 범주에서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 경험을 만날 수 있다.
담양에서 태어난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선 미술상, 대한민국 올해의 청년작가상,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가을과 브람스

광주시향, 내일 광주문예회관

슬슬한 가을과 가장 어울리는 작곡가는 아마도 브람스가 아닐까.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브람스의 곡을 만날 수 있는 연주회를 마련했다.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은 ‘주제와 변주’다. 첫 곡은 피아니스트 동수정씨가 협연하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2번’이다. 광주 출신으로 보스턴 대학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동씨는 광주예술영재교육원의 외래교수 및 광주피아노아카데미, CN피아노, 광주수리스트양상블, 국제교류센터 음악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56a’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우수에 찬 선율이 인상적인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4악장이다. 티켓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동수정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환풍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 (인원)
- 애완동물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빙2개 및 주방 확장형
- 안방 블라인드 설치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 시공 | 주 | 구산건설

MH_전대사거리 모아엘가 주택전시관 2층

10월 OPEN